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코미디TV' 개편 단행

내년 9편 자체 제작



오픽전문채널 코미디TV는 내년 1월부터 9편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보이는데 개편을 단행한다.

내년 1월에 첫 선을 보이는 주요 프로그램은 슈퍼주니어 (사진)가 새 멤버로 투입되는 리얼 버라이어티 '기막힌 외출 시즌3', 외국인 남성 6명이 한국 문화를 말하고 게임을 펼치는 '월드보이즈', 춘남 연예인의 스타일을 과격 변신시키는 '환골 탈태', 범죄 예방 프로젝트 '오션스세븐' 등이다.

또 TV영화 '러브레이싱'을 2월부터 방영하며 '고스트스팟', '톡드라마 D-day', '지극히 사적인 TV', '꼽집 다가와' 등도 순차적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주연들 카리스마·조연들 맛깔 연기...메디컬 드라마 불패 잇는다

뉴하트, 뉴히트 예감

'메디컬 드라마 불패 신화 이어가나'

화제작 '태왕사신기' 후속으로 방영 중인 의학 드라마 '뉴하트'는 방영 첫회부터 2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태왕사신기' 종영 후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던 SBS의 '로비스트'와 KBS의 '인순이는 예쁘다'의 기대를 단번에 꺾으며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시청률 대박을 터트리지는 못했지만 색다른 의학 드라마로 평단과 시청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하얀 거탑'과 외과 병동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애교소드로 사랑을 받았던 '외과의사 봉달희'의 뒤를 잊고 있는 '뉴하트'는 대박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정준혁 VS 최강국 과장

'뉴하트'는 서울의 명문 광희대학교 흉부외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끊지 않는 최강국 과장과 지방 대 출신으로 실력을 조금 부족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의료인을 꿈꾸는 이은상, 광희대 수석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몰두하는 남혜석이 주인공이다.

'하얀 거탑'의 장준혁 과장은 기존의 의학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터라는 점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특히 장준혁을 완벽하게 연기한 김명민 덕에 캐릭터는 더욱 살아 있었다.

'뉴하트'에서는 조재현이 카리스마 넘치는 최강국역을 맡았다. 김명민이 연기한 장준혁 캐릭터가 앙망에 자신을 겨는 찔러도 괴한방을 나을 냉철한 이미지라면 최강국은 '뚝'하는 성질에 다소 거친 성격을 가졌지만 환자에게는 따뜻한 좀 더 인간적인 의사다.

이미 연기력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조재현의 탁월한 연기력을 합계점을 받고 있다.

▲주·조연들의 활약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은상 역을 맡은 지성은 조금은 가벼운듯 하지만 깊은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똑순이' 이미지가 강한 김민정은 의사로서

의 성공에 야심을 갖고 있는 남혜석으로 출연중이다.

연기 인생 처음으로 악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긴 '하얀 거탑'의 김창완과 이정길은 주인공 못지 않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주연급이면서도 조연인 노민국 역을 맡았던 차인표는 극의 무게감을 잘 잡아준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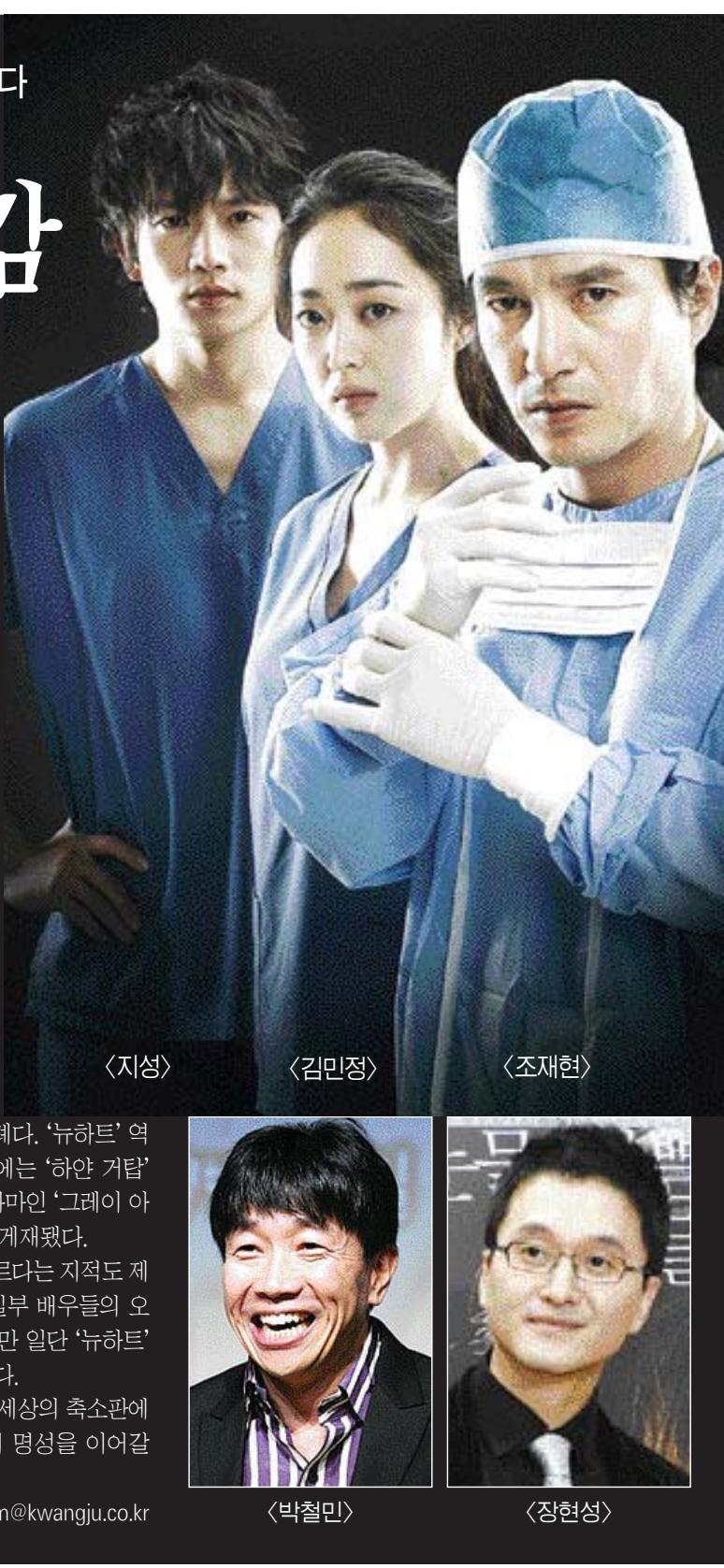
'뉴하트'에도 눈에 띄는 조연들이 포진해 있다. 최강국 과장과 대결하는 외과 교수역의 장현성과 야망을 불태우는 내과 과장역의 이기영이 눈길을 모은다. 또 '화려한 휴가' '스카우트' 등에서 맛깔스런 조역 연기를 보여준 박철민과 코믹한 연기의 달인 성동일도 의사로 얼굴을 내밀며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있다. 그밖에 박광정, 정동환 등도 극의 재미를 살린다.

▲전작의 성공을 뛰어넘어라
성공한 전작들의 아류라는 비판은 후발주자면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의례다. '뉴하트' 역시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하얀 거탑' '외과의사 봉달희' 뿐 아니라 미국 드라마인 '그레이 아나토미' 등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이 게재됐다.

또 드라마속 병원 풍경이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소 상투적인 설정과 일부 배우들의 오버 연기가 약간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일단 '뉴하트'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이라는 세상의 축소판에서 벌어지는 '뉴하트'가 의학드라마의 명성을 이어갈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 있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지성〉

〈김민정〉

〈조재현〉



〈박철민〉



〈장현성〉

한 무대 오른 남진·문주란

세월 흘러도 열정 그대로



시대를 풍미한 성인가요계의 두 빅스타가 오랜 만에 한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다.

가수 남진(사진 왼쪽)과 문주란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가요무대' 2008 신년특집 '빅스타 조인트 리사이틀' 녹화 현장에서 '타인들' '그대여 변치마오' '너와 나' '등지' 등을 함께 부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각각 1960년대 중반 '서울 플레이보이'와 '동숙의 노래'로 데뷔한 남진과 문주란은 40년 이상 우정을 나눠온 듯하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1990년대 후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를 발표한 후 좀처럼 방송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문주란의 출연이 눈길을 모았다.

문주란은 "남진 씨와 무대에 서니 극장소를 많이 했던 옛날 생각이 난다"면서 "언제 TV에 출연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나는데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너무 어려서부터 활동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연예활동을 좀 쉬고 싶었다"고 공백기를 가진 이유를 설명한 그는 "내년 1월 신곡을 발표하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진은 "노래를 시작하고 강산이 네 번 바뀔 시간이 지났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물론 히트곡을 내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좋은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2~3년 운동을 많이 해서 체중도 10kg 정도 줄었다"면서 "요즘 비록 가요계가 어렵지만 예전에 비하면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7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남진과 문주란 외에 현철·주현미, 박상칠·박주희 등이 무대를 꾸민다. /연합뉴스

12 BOX OFFICE

영화

(단위: 명)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나는 전설이다	35만4천456	50만4천456
2	색즉시공 시즌2	21만6천194	30만4천148
3	어가스트 러쉬	12만1천708	116만4천156
4	싸움	8만8천455	14만253
5	세븐데이즈	4만7천704	184만7천852
6	색_계	3만8천437	176만5천840
7	헤어스프레이	3만3천123	25만2천970
8	식객	1만5천82	295만46
9	미녀배달부 키키	7천473	2만3천689
10	열한번째 엄마	5천592	32만8천068

〈자료제공: 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	제 목	방송·시청률
1	며느리 전성시대	KBS2 31.0
2	미우나 고우나	KBS1 30.8
3	대조영	KBS1 30.5
4	황금신부	SBS 24.6
5	무한도전	MBC 24.5
6	이산	MBC 23.5
7	왕과 나	SBS 22.0
8	이현정 마님	MBC 20.0
9	해피 투게더	KBS2 19.5
10	조강지처 클럽	SBS 18.6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르
1	오션13	드라마
2	만남은 광장	코미디
3	스파이더맨 3	액션
4	에반 유티마티	코미디
5	제9종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네스트	SF

〈자료제공:영화미디어〉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마지막 인사	빅뱅
2	첫 눈	SG워너비
3	Tell me	원더걸스
4	TPL	에나비밴드
5	배반	빅미마
6	거짓말	빅뱅
7	슬픈 비보	민경훈
8	소녀시대	소녀시대
9	Promise You	애나비밴드
10	Adios	은지원

〈자료제공: 멜론〉

movies 인기 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메가박스

구. 헌정의 국사거리 | ☎ 060-1544-0600

황금나침반-디지털 (전체) 최고급관

2관 내 사랑 (12세)

3관 내셔널트레저-비밀의 책 (12세)

4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5관 색즉시공 시즌 2 (18세)

6관 앤더슨슈퍼밴드-제작 (전체) / **내셔널트레저** (12세)

7관 활금나침반 (전체)

8관 싸움 (15세)

9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대기 흥행이 좋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 시 3시간 무료
• 단, 영화 관람권에 포함 3시간 초과 시 경정요금 부과
• 무료주차 24시간 퀵체크-티켓만 있으면 푸짐이 무료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황금나침반 (전체)

2관 내사랑 (12세)

3관 내사랑 (12세)

4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5관 앤더슨슈퍼밴드 (전체)

6관 색즉시공 2 (전체)

7관 내셔널트레저 (12세)

8관 내사랑 (12세)

9관 황금나침반 (전체)

www.entercinema.co.kr

* 남한의 역사와 주장을 살펴나는 3D 영화입니다.
* 21일 ~ 25일 까지 심야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미드 사이) 해남점 (무역관동면)

1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2관 웨일스터 러쉬 (전체) / **색즉시공 시즌2**